

## 정책·검증·열기 '3無 선거'

### 광주·전남 12곳 민주 '독주' ... 지역발전 악영향 우려

#### 총선 D-8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담양·곡성·구례 지역에서는 좀처럼 선거 열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나라당, 평화통일장담 후보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통합민주당 김효석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서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5면〉  
민주당 일부 강세지역 등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선거 열기가 아예 없고 공천 지연에 따른 정책·공약 대결 상실, 유권자 검증 기회 박탈 등 이른바 '3무(無) 4·9총선'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담양읍에서 만난 김모(56)씨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보다는 더 치열하다"며 "살다가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지역구는 전남에서만 여수 갑과 을, 나주·화순, 순천, 담양·곡성·구례, 영암·장흥·강진, 광양 등 7곳에 이른다.

광주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도전이 거센 광주 북갑과 남구, 광산 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20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60%에 달하는 12개 선거구에서 정책 및 공약 대결이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이 같은 정책 및 공약, 이슈 대결의 실종은 광주·전남지역 미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선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정책 및 공약 경쟁과 이슈 제기가 있어야 지역의 현

안 점검과 미래 발전 전략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및 공약 대결 구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서 부실 공약도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일부 후보자들은 투자 자원 마련 대책도 없이 뜬구름 잡기 식의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지자체들이 이미 밝힌 계획을 공약으로 재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모 후보 보좌관은 "명목상의 정책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경쟁 상대가 없다는 점에서 내용 등이 과거에 비해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지역 현안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당의 능력 공천으로 후보 검증 기회도 충분치 않아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을 더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역구에 나온 후보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 지역예선을 하는 노모(48)씨는 "현재로서는 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후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기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측은 득표를 높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으며, 선관위도 투표 독려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은 각각 60.2%, 63.4%를 기록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60%대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tuim@kwangju.co.kr

####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그리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심층 해부하는 광주일보의 탐사보도 '고미워요 당신의 땀방울' 취재진은 한국으로 노동자를 송출하는 아시아 주요국가에 대해 현지 취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네팔과 방글라데시 일원을 취재중인 사회부 안현주 기자가 '코리아 드림'의 열기에 휩싸인 네팔 현지에서 제 1신을 보내왔습니다.



네팔에서 처음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에 네팔국민 3만2천여명이 응시했다. 현지시간 28일 오후 1시에 네팔 카트만두에 설치된 17개 시험장 중 한 곳인 시바쁘리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응시자 1천여명이 줄지어 시험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 한국어 시험 3만명 '장사진'

#### 카트만두=안현주 기자

28일 오후 1시30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내에 위치한 '시바쁘리 고등학교(SHIVA PURI SCHOOL)' 정문 앞.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교 정문 주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바로 네팔에서

네팔인들이 꼭 통과해야 하는 1차 관문이다. 6천명을 뽑는 이날 시험의 응시자는 무려 3만2천여명. 카트만두 17개 학교에서 이틀간에 걸쳐 치러졌다. 네팔에서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제외하면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니 나라 전체가 들쭉이는 것이 당연했다.

네팔은?



▲인구= 2천760만명 (2006) ▲면적=14만7천km<sup>2</sup> ▲GDP= 230달러(세계 152위·2006년) ▲한국취업 노동자 수=3천429명(한국내 11위)

#### '꿈의 나라' 코리아 가기 필수 코스 高入 다음 큰 시험 ... 나라가 '들쭉'

처음으로 치러지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2008 EPS-KLT·Employment Permit System-Korean Language Test) 응시생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온 친구들이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방식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뀐 뒤 생긴 이 시험은 '꿈의 나라'인 코리아에 가기 위해

학교 입구에서 무장경관이 시험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기자는 '코리아'이란 말 한마디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네팔에서 '한국'의 위상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3층의 한 교실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파견 나온 김지훈(38) 대리가 이 학교 교사 44명을 대상으로 시험감독 교육을 하고 있었다. OMR 답안지 작성과

듣기시험 카세트 플레이어 작동법을 설명 중이었다. 현지 통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과 현지 한국인 자원봉사자 7명이 맡았다. 오후 3시가 되자 시험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곧바로 듣기 시험이 진행됐다. 대부분의 두 달에 5천루피(한화 8만원·중산층 한 달치 월급) 가량을 내고 한국어 학원을 다닌 응시생들이지만 정확히 정답을 표기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다. <2면으로 계속>

## 영산강 뱃길 연계사업 추진 활발

#### 전남도, 보성~임성간 철도 노선변경 건의

전남도가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확대, 보성~임성간 철도 노선변경 등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남도는 현재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시 나주대교~목포시 영산강 하구둑 131.8km 구간 우측 강변도로 개설 사업을 영산강 복원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좌측 강변

도로까지 확대해줄 것을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영산강 강변도로는 강 오른쪽을 왕복 2차선 도로 및 자전거도로(폭 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착공해 현재 5.2km가 개설된 상태다.

전남도는 영산강 뱃길 주변의 관광, 레저 활성화와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개설 중인 이 도로와 함께 왼쪽(영암쪽) 강변도로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 등 정부 기관에 전달했다.

전남도는 또 영산강 뱃길 복원과 조선산업 클러스터 등 서남권 개발에

획에 맞춰 보성~임성간 철도 노선 중 '영암~임성(18.0km)' 노선을 '영암~대불산단~목포역(20.0km)'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현재 10%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는 이 구간 철도 개설사업에 대해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불산단을 경유하는 '영암~대불산단~목포역'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선 변경은 기존 계획을 따를 경우 영암과 무안의 접경지점에 영산강 횡단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만큼 향후 영산강 운하 사업이 진행되면 철교를 해체한 후 교량 높여 재가설해야 하는 점도 감안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식품'된 천일염 대접이 다르네

수십년 간 광물로 분류되어 식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웠던 천일염이 관련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천일염 판매를 시작했다.

신세계 백화점은 3일까지 국내 천일염 대표 생산자인 '전남 신안군 천일염 축제'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판매되지 않던 국내산 천일염을 소개, 판매한다.

CJ홈쇼핑은 2일 신안산 천일염의 판매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육지와 50km 떨어진 신안의 염전에서 생산된 것으로, 칼슘, 마그네슘 등 천연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연협뉴스>

#### 광주일보·KBC 공동 총선후보 토론회

▶ '광주 광산 갑' 2일 KBC 스튜디오 ~ 3일자 지상중계

국립전남대학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리에겐 적은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POSCO